

주간기도정보

2024. 1. 23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개신교인, 5년 새 20.3%→16.5% 감소

개신교인 비율 20·30대는 10명 중 1명꼴



대한민국 개신교인 인구(만 19세 이상)가 정점을 찍었던 2012년 22.5%에서 10년 만에 16.6%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40대에서는 무려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최근 한국인의 종교 분포를 알고자 전국 5,451명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단독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성인 기준) 진행했으며, (주)지앤컴리서치가 수행했다.

먼저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인’의 비율은 2004년 57%로 최고치를 찍은 후 지속적으로 줄어 2023년 3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30대 종교인 비율은 각각 16%, 19%로 2017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개신교인 비율은 2017년 20.3%에서 2023년 16.6%로 줄었다. 20·30대에서는 각각 9%와 11%로, 청년 10명 중 1명 꼴이었다.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 사회보다 빨랐다. 60대 이상의 비율은 교회 출석자 중 무려 52%로, 일반 국민 중의 비율인 32%보다도 매우 높았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층의 개신교인 비율은 성인 평균보다 낮았다. 개신교인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13.6%로, 불교(7.6%)와 가톨릭(5.7%) 비율을 합한 수치와 비슷했다. 개신교인 비율은 중학생에선 17%인데, 고등학생에선 10%로 떨어졌으며, 청소년 중 남학생에선 17%로 여학생(10%)보다 높았다.

10년 후 개신교인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단순히 지난 11년간의 기울기를 반영하면 10년 뒤 12.6%까지 떨어지며,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3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목데연은 “한국교회는 탈종교화와 개신교인의 감소, 가나안 성도 증가,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 현상에 더해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적 문제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목회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세대 사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신앙이 유지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교회 출석률은 64%인데, 20대에 접어들면서 55%로 떨어진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함이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린도 후서6:1-2)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에스겔 36:26,28)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취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굳어진 마음으로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교회도 영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고 암담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이기에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히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세대로 회복시켜 주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낙망치 않고 살아계신 주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의 영광을 나타내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위협을 그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이라”

북한, 새해 들어 강화된 당국 통제에 주민들 집단 반발

대남 강경 기조에 따라 대적 관념 세우기 나서...사회주의 생활양식 강력히 요구해



북한 국가보위성이 전국 보위국에 한국 TV 프로그램이나 출판물을 보는 행위를 반국가 적대 행위, 이적 행위로 간주해 확고히 제압하며 강도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릴 것을 지시한 가운데, 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수의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경 연선과 최전연(최전방) 지역들에서 텔레비존(텔레비전) 통로(채널)를 마음대로 돌려 적국(한국)의 방송을 보고 듣거나 출판선전물을 유입, 유포하는 행위는 반국가 적대 행위, 이적 행위, 반동 행위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의 국가보위성 지시가 전국 보위국에 내려졌다.

국가보위성의 이번 지시는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확립된 대남 강경 기조에 따라 내부에 주적(主敵) 관념을 확고히 세우고 이른바 ‘적대국’의 영상물, 출판물 유입·유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3일 “지난 10일 청진시에서 규찰대의 단속에 주민 수십 명이 집단 반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다행히 사법기관에서 신속히 출동하여 사건은 주민들의 집단 소요 사태까지 번지진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해왔다.

이는 15세의 한 여학생(고급중학교)의 복장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로 지정된 옷차림 단속에 걸린 것이라며 이를 해명하던 여학생과 언니를 대학생 규찰대가 구타하자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거칠게 항의하며 모여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놀란 규찰대 책임자가 급기야 손전화로 사법기관에 진압을 요청했다”면서 “도 안전국과 시 안전부에서 출동한 안전원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주민들이 흩어졌고 단속된 여학생과 그의 언니는 피투성이가 된 채 사로청(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 끌려갔다”고 했다.

새해 들어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생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단체에서 규찰대를 조직했는데, 길에서 규찰대에 단속되면 건당 북한 돈 5천 원의 벌금과 단속 조서, 소속기관에서 집단적인 사상비판을 받게 된다(출처: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상전들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에베소서 6:9)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누가복음 12:2,7)

하나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처벌과 단속을 시행하는 북한 지도부의 악함을 꾸짖어 주십시오.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 이미 많은 주민의 사상이 흔들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지도자에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 주소서. 또한,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이 밀려드는 외부 문물을 접하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북한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며 진리로 참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열방에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미신·무속에 빠졌다…운세에서 희망 찾는 청년들
문화 현상이 된 ‘운세 보기’…미신 확산 막고 청년 돌봄 나서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신년운세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딱딱한 현실에 MZ 사이서 ‘운세 보기’가 유행을 끄는 모양새다. 기댈 곳 없는 청년들이 사주나 타로 등에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향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요즘에는 비대면 상담이나 유튜브로 보는 운세가 더 인기가 있다. 디지털에 친숙한 MZ 세대가 주 고객층이 되면서 직접 점집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채팅이나 화상 등 온라인이 대세가 된 것.

SNS만 봐도 사주·타로·관상 등 운세에 관심을 두는 청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타로나 관상, 사주 관련 게시물은 10만 개가 넘는다. 취업준비생이 모이는 각종 시험 커뮤니티에도 ‘미래가 답답해서’, ‘시험에 떨어져서’와 같은 이유를 내세운 사주 관련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기독교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진행한 ‘기독교 청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청년 5명 중 2명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점이나 타로 등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민형 성결대 교수는 “인생이 불안할 때 찾게 되는 것이 점과 사주·타로라고 한다면 기독교 청년 역시 막막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적 평안을 얻기 위해 점과 타로 등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현실적 고충, 마음의 고통 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을 향한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교회가 먼저 한국 사회와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의 사주·타로 열풍을 단순 현상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광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년들 사이에서 점이나 사주에 의존하는 ‘미신 심리’가 퍼지는 이유는 불확실한 상황 속 불안감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의존하면 운명주의자가 된 채 노력하지 않거나, 운세 풀이에 중독돼 주도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편 37:4-5)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뎌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골로새서 1:10-12)

하나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계획과 원함을 좇아가다 마주한 불안한 현실에 미신을 찾으며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마른 자들의 시선을 가로채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간계를 파하시고,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들려주사 헛된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또한, 청년들이 분명하고 단순한 십자가의 진리에 사로잡혀 현실에 침몰 될 수 없는 넘치는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모든 길을 맡기고 따라가기에 충분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세대를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 방황하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